

한국 디자인사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전제

Some Propositions of Study on Korean Design History

최 범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 Key words: Justification, Reflexion, Historical View

Choi, Bum

Graduate School of Techno Design, Kookmin Univ.

1. 정당화와 성찰

최근 한국 디자인사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현상이다. 몇 가지 제도적 기준(교육, 정책, 산업 등)으로 보면 한국 디자인도 어느덧 40-50년의 연륜을 가지며, 또 이 분야의 양적, 질적 성장 정도를 생각하면 역사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어느 분야가 자신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접근과 연구마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역사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복잡미묘한 물건이며 매우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디자인 분야가 자신의 역사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이미 디자인을 현재적 실천을 넘어서 사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말해서 디자인 행위라는 것이 단지 현재적 사실만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다는 얘기이다. 그동안 우리는 디자인을 주로 현재적인 실천과 이해관심 속에서만 생각해왔다. 그러나 디자인 역시 다른 모든 인간적 실천과 마찬가지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디자인사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너무도 당연한 자각인 것이지만, 디자인 분야로서는 또한 매우 소중한 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 연구는 사실에 근거한 객관성을 지향한다. 그러나 실제 역사 연구가 반드시 객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사실에 근거하되 일정한 관점에서 재구성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사실도 허구도 아닌, 사실과 허구의 중간쯤에 자리한다고 생각한다. 역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 역사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즉 정당화(justification)와 성찰(reflexion)이다. 정당화란 역사적 궤적에 인과성을 부여함으로써 현재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에 반해 성찰은 역사란 언제나 여러가지 가능성 중에서 선택된 것이며 그런 점에서 현재가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한다. 정당화가 주로 역사를 믿도록 만든다면 성찰은 역사를 의심하도록 한다. 전자가 보수적이라면 후자는 개혁적이다.

그러나 역사에는 이 두 가지 기능이 모두 필요하다. 역사는 기록을 통해 공동체의 기억을 보존함으로써 공동체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하며, 또 성찰을 통해 공동체의 새로운 발전을 담보한다. 그러므로 정당화로서의 역사는 보존적 욕구를 반영하며 성찰로서의 역사는 도전적 욕망을 자극한다.

그러면 한국 디자인사 연구의 경우는 어떠한가. 가장 먼저

인지되는 것은 보존적 욕망이다. 해방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등장한,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닌 한국 디자인계이지만 역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망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지금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관심이 바로 그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보다는 미약하지만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성찰적인 관심도 더러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한국 디자인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디자인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정당성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질문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20세기 후반 이후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변화는 디자인 분야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기존의 제도와 영역이 흔들려왔다. 디자인은 나름대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왔고 어쩌면 그러한 변화에 앞장 서 왔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러한 변화들이 자신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망을 더욱 추동했던 것도 사실이다. 변화 속에서 디자인은 자신의 궤적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관심은 바로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부화되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 디자인사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전제

앞서의 관점에 근거하여 향후 한국 디자인사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를 몇 가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기존 연구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과 함께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한국 디자인사 연구가 조금이라도 더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것이 되기를 바란다.

2-1. 제도의 역사를 넘어서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디자인의 역사는 디자인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디자인을 좁은 제도(교육, 전문직, 생산 등)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보다 넓은 사회문화적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디자인의 역사는 제도의 역사는 물론이고 디자인의 사회사와 문화사를 포괄한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디자인 제도의 역사에 머물러온 감이 없지 않다. 물론 제도의 역사도 디자인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디자인의 역사는 디자인 제도의 역사를 넘어서 있다. 오늘날 디자인은 매우 폭넓은 사회문화적 과정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디자인사 연구에도 이러한 시각이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디자인사가 디자인 제도사로 수축되고 급기야 메마른 공식사(official history)에 함몰되어버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2-2. 사료나 연표가 역사는 아니다

한동안 디자인계에서 연표 만들기가 붐을 이룬 적이 있었다. 연표란 일종의 간략한 연대기이다. 그러니까 연표도 일종의 역사 서술이며 일관된 관점에 따라 나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표 작성은 주로 외국의 틀을 그대로 빌려오거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야로부터 가져와 적당히 짜집기한 것일 뿐, 디자인사의 독자적인 시각을 갖추지 못한 것이 많았다. 그러므로 연표 역시도 나름대로의 역사 연구 결과 가능한 것이지, 진공의 상태에서 마음대로 엮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역사에서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란 없으며 모든 것은 해석된 사실일 뿐이다. 개략적인 연표가 결코 역사 연구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 또한 역사 연구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10여년 전부터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면서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디자인과 관련된 사료가 수집되고 지면과 전시회 등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역사 연구에서 사료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사료의 제시와 역사 연구는 구별되어야 한다. 흔히 '한국 디자인사 00년'식으로 제시되는 내용들이 그러한데, 사료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의의는 매우 크지만 마치 그것 자체가 역사 연구인 것처럼 간주된다면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란 역사적 사실(사료)을 대상으로 일정한 관점(사관)에 따라 조직, 재구성한 이야기(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디자인사 연구는 단순히 사료를 제시하거나 연표를 나열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2-3. 단순한 발전사관은 지양되어야 한다

디자인사에 대한 시각과 방법이 좀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많지 않은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서술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발전사관(*progressive history*)으로서, 한국 디자인사가 발생에서 정점에 이르기까지 마치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해나간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단순한 직선사관(*linear history*)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역사란 그렇게 단순하게 전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다. 단일한 발전사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 디자인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에 대해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4.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제대로 된 역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는 디자인 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박물관과 아카이브를 비롯하여,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시스템, 그리고 나아가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가장 안정적인 조건으로서 교육 제도의 마련을 들 수 있다. 현재 양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디자인 교육의 현실을 생각할 때 적어도 대학원 과정 정도에서는 디자인사 전공 개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프라를 갖추지 않는다면 한국 디자인사 연구는 몇몇 개별적인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을 넘어서지 못하며 한국 디자인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 토대도 마련되기 힘들 것이다.

3. 결론

모처럼 일기 시작한 한국 디자인사 연구가 제대로 추동되고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디자인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디자인사 연구가 디자인계의 보존적 욕망에 압도되어 정당화 기능에만 치우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역사의 정당화 기능에 못지않게 성찰의 기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성찰을 통해서 비로소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디자인사 연구는 한국 디자인의 역사적 궤적을 돌아보는 가운데 디자인 공동체의 재생산과 함께 디자인 실천의 변화를 추동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